

생태공감마당, 사선대서 열린다

체험행사 최적합지 영예 10월 13일~14일 광파르

임실군 사선대 생태공원이 전 국민이 함께하는 2018 생태공감마당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군은 국립생태원에서 주관하는 2018 생태공감마당(Ecoative) 개최지로 관촌면 관촌리 222번지 사선대 생태공원 일원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사선대 생태공원은 국립생태원이 지난 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상으로 선정, 올해의 생태공감마당 체험행사의 최적합지라는 영예를 안았다.

국립생태원은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전국적으로 체험행사 개최지를 모색해 왔다. 생태공감 체험행사는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수받아 오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국립생태원 생태협력부 환경생태연구원 등은 8일 임실군을 방문하여 사선대 생태공원 일원에 대한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사선대 생태공원 일원은 시원하게



임실군은 국립생태원에서 주관하는 2018 생태공감마당 개최지로 관촌면 관촌리 222번지 사선대 생태공원 일원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흐르는 섬진강 오원천과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자연환경이 빼어난 지역이다.

호수에 비친 오색찬란한 단풍과 수준 높은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조각공원과 사선대를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서 운서정까지 이르는 산책길은 아름다운 수목과 그늘 등 휴식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산책코스 유명하다.

인근에는 350여명의 학생 등이 숙박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이 있으며, 치즈체험 일번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도 가깝다.

특히, 성미산 일원에는 천연기념물 제387호인 가침박달나무와 제388호인 산개나리군락이 분포돼 있어, 우리나라 산개나리의 자생 남방한계선으로써 학술적 가치와 종 보존으로써 가지는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 민 군수는 "오는 10월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선대 생태공원을 찾아주시길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설렌다"며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임실N치즈축제로 이어 생태공감 체험 행사까지 열려서 관광객 유치에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스포츠마케팅 핵심 '보조경기장' 건립

순창군, 69억여원 투입 건설공사 착공 내년 완공

순창군이 스포츠마케팅 핵심 인프라로 쓰일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에 나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7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팔덕면 구룡리 49번지 일원에 야구장 1개소 및 축구·야구 겸용구장 1개소 건설공사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야구장은 면적 9,700㎡에 35mm 인조잔디가 설치되며 축구·야구 겸용구장은 면적 1만3,000㎡에 두께 55mm 인조잔디가 설치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 69억 여원이 투자되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최근 순창이 스포츠 전지훈련지와 각종 대회 유치 장소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정구, 테니스 등 실내경기 뿐만 아니라 야구, 축구 등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종목의 유치 확대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실제 2016년부터 순창군은 강진산배 청소년 야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순창군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감도

해 전국에서 사람이 몰리며 유소년 야구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대회에는 76개팀 1500여명의 선수단과 가족들이 참가해 경기장 부쪽으로 인근 시군 경기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군은 이번 보조경기장 건립으로 연 1회 이상 축구 야구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이번 보조구장 건립이 강진산과 고추장민속마을을 잇는 관광벨트의 중간 지점으로 공공승마장과 함께 관광객스포츠타운으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야구, 축구 등 각종 동호인 리그와 생활체육인들도 양질의 경기장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민 여가 선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2018 아쿠아페스티벌이 어린이들의 기억에 남는 특별한 물놀이터를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아쿠아페스티벌 내년에 또 만나요”

임실치즈테마파크 1만여명 피서객 방문 대성황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2018 아쿠아페스티벌이 어린이들의 기억에 남는 특별한 물놀이터를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아쿠아페스티벌에는 첫날부터 2천여명이 몰리더니 주말을 기점으로 1만여명을 돌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말 그대로 '물만, 사람만' 일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연일 큰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여름방학과 휴가철, 주말을 맞은 가족단위 전주시 등 인근 도시민들이 앞다투어 찾으면서 북적북적 물놀이 페스티벌을 연출했다.

이곳을 찾은 아이들은 풀장에서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물장구도 치며 동심의 나라를 펼쳤다.

특히 물놀이장 바로 앞 무대에서 펼쳐진 어린이 인형극과 난타 공연, 버블공연, 풍선아트 등 다양한 공연까지 즐기면서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렸다.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에어바운스 풀장을 뒤엎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시원한 물놀이'를 선사했다.

심 민 군수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성공적인 축제로 잘 마무리한 것 같아 기쁘다"며 "내년엔 올해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더욱 발전적인 축제를 준비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농산물 품질향상 최선 고온기 시설채소 기술 보급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이하 센터)가 여름철 시설채소의 고온피해 및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해 현장지도에 주력해 농산물 품질향상 및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여름철 시설하우스에서 주로 재배되는 채소는 토마토, 상추, 파프리카, 멜론 등인데, 하우스는 노지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환기시설, 차광시설, 포그 냉방시설 등을 활용 온도를 떨어뜨려 고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포그 냉방은 안개보다 작은 미세한 물입자(포그)를 하우스내에 분무해 열을 흡수해 온도를 낮추는 증발냉각원리를 적용한 방법이자 고온에 의한 일소현상이나 급성시들음현상

을 예방할 수 있어 고온기 시설채소 재배농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시설 온도를 3~5℃ 정도 떨어뜨려 고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센터에서는 포그냉방 시설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온도를 떨어뜨려 고온피해를 예방하는 기술을 파프리카 및 방울토마토 농가에 확대보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는 차광시설, 유동팬, 강제환풍기 등을 적기에 활용할 경우 시설채소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고온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힘쓰고 있다.

이환중 소장은 "고온피해를 예방 시설채소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등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접수

임실군은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대상자들로부터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월세 임대가구에는 실질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지원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규대상자들까지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며, 급여신청시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실시 후 소득을 고려해 지원한다.

신청은 수급권자,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사회복지담당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640-2298)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어르신 배움교실 수강생 모집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책임질 2018년 하반기 어르신 배움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어르신 배움교실은 만 60세 이상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치유요가교실,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악기교실, 실버댄스스포츠교실, 장수요가교실, 노래교실, 장수출교실, 서예교실 등 10개 과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군은 다양한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정을 신설했다. 교육모집인원은 총 230여명 규모다.

무료로 실시되는 이번 어르신 배움교실은 6일부터 10일까지 순창군 노인복지관을 방문접수하거나 순창군 노인복지관 전화 650-1534번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기 있는 과목은 서둘러 접수해야 한다.

실제 교육 운영은 오는 9월 3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 배움교실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배움 기회도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면서 "노인 건강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